

# 교양으로서 문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안미영(건국대 글로컬)

## 1. 기초학문으로서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

우선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이 처한 현실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기초학문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취업과 같이 빠른 성과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목전의 취업에 목말라 하는 만큼 기초학문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신생 학문이 출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교육 자체의 패러다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을 해야 한다면 문학 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가가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신생 직종과 사회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수하려는 교육설계에 문학 교육이 어떠한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효용 가치를 알기 위해 인공지능을 전공한 IT개발자와 인터뷰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질문자 : 인공지능을 전공한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문학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발자 :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글자 또는 문자를 통해 문장을 인식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핵심 키워드들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p> <p>우리가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질문 내용에 의미, 핵심 키워드를 인식하고 연관된 정보를 찾아 요약정리해서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질문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p> <p>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문학(인문학)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문장과 문장에 대한 이해 등 우리가 문학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내재해 있으며 그것이 바깥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공학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로직이며 핵심 기술은 인문학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문자 : 초기 그쪽 분야 사람들이 인문학자이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발자 : 기존에 공학했던 사람들은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거나 그쪽 분야 사람들을 초빙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컨대 형태소 분석, 언어 분석 방법부터 했습니다. 철학자, 문학자도 초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공학 계열은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할까를 가지고서 철학자들도 많이 불러서 공부시켰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p> <p>단순히 기계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문학자들의 서포트</p>
--

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령 폰에 있는 인터페이스도 그냥 공학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야 접근 방법이 쉬운지에 대해서,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가서 고민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해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문학 전공자들의 서포트가 내재해 있습니다.

- 2025,2.9 L사 개발자와 인터뷰

## 2.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학 교육

이 자리에서는 환경 변화를 짚어 보고 그에 따른 문학 교육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환경 변화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및 지역거점대학을 제외하고 문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영상 매체의 발달로 활자화된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학 교육은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文學)은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문자로 나타낸 예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주목하여, 두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대학 교육에서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 문자로 나타내는 예술’이 얼마나,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우선 순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이며, 미래를 위해 보편타당한 것일까요.

둘째,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자의 형태로 구현된 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영상 미디어가 대중 친화력이 높으므로 정서나 사상을 더 널리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자 예술은 영상 예술의 모본(母本)을 포함하여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학과의 문학 교육과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의 차이

‘학과에서 가르치는 문학’과 ‘교양에서 가르치는 문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교양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해 있으므로,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은 다양한 응용학문을 위한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영상 예술과 장르가 출현하지만, 모두 서사라는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의 구조를 알고, 읽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통해 서사의 전모를 읽고 구조적인 틀을 파악할 수 있다면 매체가 다른 서사물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둘째, 언어를 통한 상징적 다의성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는 다양한 정서와 신념 등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언어의 활용을 통해 의미의 변주, 확장 등에 익숙해진다면

이미지의 다중성, 다층성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 4.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 범주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학문으로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기초학문의 준거를 고려한다면, 문학이라는 학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은 핵심적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은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은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기초학문으로서 문학 수업은 일관성, 통일성, 포괄성, 개방성, 시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통시적으로 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등교육에서 시행하는 문학 교육은 학문으로서 보편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째, 공시적으로 영상 미디어를 비롯한 문화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문학 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문학 언어의 이해’, ‘미메시스와 재현’, ‘서사와 플롯’, ‘시점과 화자’, ‘비평방법론’, ‘문예사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교양교육연구』,2021)